

효성, Polyester · PET로 이익확대

꾸준한 가격인상에 제품차별화 확대 ... 스판덱스 매출증가 기대

효성이 Polyester와 나일론 제품가격 인상 등에 힘입어 2/4분기 순이익이 약 77% 증가했다.

효성은 7월27일 기업설명회(IR)를 열고 2/4분기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7.4% 증가한 1조2501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2/4분기 영업이익은 829억원으로 1/4분기 491억원보다 68.8%, 전년동기대비로는 9.7% 증가했다. 경상이익은 전년동기대비 9.5% 늘어난 622억원이었고, 순이익은 76.7% 증가한 45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효성은 2004년 상반기에 매출액 2조3373억원, 순이익은 708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특히, 섬유부문의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2% 늘어난 2547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8.9% 감소한 60억원으로 집계됐다.

효성의 경영실적

(단위: 억원, %)

구 분	2003.1Q	2003.2Q	2004.1Q	2004.2Q	전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매출액	10,075	11,641	10,872	12,501	15	7.4
영업이익	789	756	491	829	68.8	9.7
경상이익	265	568	324	622	92	9.5
순이익	175	258	252	456	81	76.7

효성의 실적개선은 2004년 들어 원료가격 상승분을 제품 판매가격에 꾸준히 반영해 Polyester와 나일론 제품의 판매가격을 인상했고 차별화 제품의 매출비중을 40%까지 확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고유가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시황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PET Bottle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효성은 2/4분기 중 구미 스판덱스 공장이 완공됨에 따라 제품생산 및 판매량이 늘어나고 화학부문이나 산업자재 부문 등도 호조를 지속할 것으로 보여 3/4분기 실적은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7/28>